

‘자동차 도시 광주’ 기술력 또 입증

‘R&D 연구과제’ 공모서 지역 부품업체 7곳 주관·참여기관 선정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정부의 ‘자동차 R&D 연구과제 공모’를 모두 휩쓸면서 ‘자동차 도시 광주’의 기술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시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신규 기술개발 연구과제 7개 중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승용디젤 SCR탱크 모듈개발’ 등 6개 과제를 주관기관으로, 1개 과제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업체는 ㈜지금강, 서진산업(주), 한일투브(주), ㈜라도, 프로테크리아(주), ㈜금호HT 6개 업체이며, 참여기관 지역업체는 한국알프스(주) 1개 업체다.

선정된 7개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오는 2016년 8월까지 61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자동차부품연구원,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광주지역 부품 업체들의 활약은 광주시의 꾸준한 기술지원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술지립화 역량이 열악한 부품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유치하는 등 부품업체 연구개발 능력 강화 기반을 확보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진폭산단에 건립중인 디젤기술전

문센터가 오는 2015년 준공되면 광주지역 자동차 기술개발의 인프라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 일본도 보쉬, 덴소 등 자국 내 부품업체의 선진기술력이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 중소기업의 기술력 입증도 광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지역 부품업체가 정부 연구과제 공모에 모두 선정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광주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디메틸에테르, 석유 대체 에너지 될까

시, 경제성 실증사업 추진...가스공사 등과 협약

청정하고 저렴해 석유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디메틸에테르(DME·Di-methyl Ether)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실증사업이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21일 “최근 한국가스공사, 광주영농조합법인과 ‘DME 농어촌 현장 적용 및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ME는 일본과 중국, 터키 등에서 LPG와 혼합 또는 단독으로 가정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촉매 반응시켜 합성하는 물질인 DME는 LPG와 유사하고 연소 때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DME를 농어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2년간 실증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한국가스공사는 DME가 LPG와 같은 차량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광주시 친환경 그린카 생산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실증사업은 광주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한 광주시 남구 대지동 4600㎡ 규모의 광주유목장 유리온실에서 진행되며, DME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오톨기 2대를 설치해 각종 채소와 농작물 육묘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등의 실증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45kW급 열병합발전기 1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분산전원 실증도 함께 추진한다. 시설 사업비 4억5000여만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며, 실증사업 이후에도 광주유목장측이 시설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된다. 박정환 광주시 과학기술과장은 “면세 유 제도가 폐지되는 2015년 말 이후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우보다 20% 이상 저렴한 DME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청정연료인 DME 실증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됨에 따라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의 핵심인 친환경 그린카 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전기차 신청하세요

시, 민간 35대 등 보급
내달 3일까지 대상자 모집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43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 20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민간 보급분은 35대로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시민이 대상이다. 나머지 8대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시 본청과 사업소의 일차리 창출,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희망자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주차공간(임차가능)을 확보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보급한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승낙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차량 1대당 2000만원이 보조되며 완속 충전기 1대도 직접 설치해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기아자동차 레이(Ray)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중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고, 매월 기본요금 1만9120원과 충전에 따른 전기 요금만 내면 된다.

대상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1월 3일까지 자동차산업과(062-613-3932)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달 평균 1000km를 주행할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 유지비의 20% 수준인 기본요금을 포함해 4만7750원의 전기요금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 광주 ‘稅포졸’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제고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결과 발표대회’에서 광주시 대표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연구결과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부서에서 36팀이 응모해 최종 6개팀이 참가했으며, 광주시의 지방세 연구동아리인 ‘세(稅)포졸’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稅)포졸’의 발표자로 나선 광주

시 세정담당관실 김재량 주무관은 ‘3차원 채권분석을 통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주제로, 선순위 권리에 묶여 압류 후에도 장기간 체납처분을 못하는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정남인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세무직공무원들이 지방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마을학교 마을활동가 양성 심화과정

‘사람이 마을이다’ 수강생 모집

광주시는 21일 “2014광주마을학교의 마을활동가 양성 심화과정 ‘사람이 마을이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NGO시민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광주정신을 구현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민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총 3회 진행된다.

1년 이상 마을에서 주민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거나 광주NGO시민재단의 마을학교 기본과정인 마을디자인워크숍 수료생,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24일까지 광주NGO센터 홈페이지(http://ngocity.org)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swinfo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30명 이내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1강 ‘마을활동 의제찾기’ ▲2강 ‘찾아가는 마을책’ ▲3강 ‘마을활동가 되기’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과정은 마을활동가 등 5~6명의 멘토와 수강생들이 모여 의제를 찾고, 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다. 문의 062-381-1133.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촌보캠핑장에서 ‘행복나눔 무료캠핑체험’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박정환 광주시 하천관리담당관은 “비우 부담 등으로 캠핑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여가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횡수와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빛고를 반려동물 문화마당 행사

시·광주전남소비자 시민모임
26일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광주시와 (사)광주전남소비자 시민모임은 26일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광주·전남수익사회 주관으로 2014 빛고를 반려동물 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빛고를 반려동물 문화마당 행사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반려동물 문화행사로서,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고 유기동물 발생 방지, 유기동물 분양, 동물등록제 홍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가족, 수의사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열리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달리기, 슈퍼 반려 스타킹(장기자

랑), 기부&Take 등이 진행되고, 동물 무료 의료진료, 동물보호소 홍보와 유기동물 분양, 사진 콘테스트, 승마체험, 동물과 함께하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도 열린다.

반려동물은 ‘애완동물(愛玩動物)’을 개칭한 말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애완동물이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반려)’로 부르게 됐다.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광주시 생명농업과(062-613-3983)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평생 1회 가입비 이외 더 이상 아무 비용이 들어갈 일 없습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죽영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시정본점 051)819-0038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